

2025년 고용보험 2100만시대 연다...3조2000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통한 '2025년 사회안전망 청사진 공개' 고용장관 "기초생보 개편...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 약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쉬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 3조2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특고)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로써 작년 기준 취업자 절반에 못 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1367만명)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확 끌어 올리기로 했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7만 8000명에서 5년 뒤 16만6000명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특고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월평균 보수 60% 수준에서 제공키로 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물론이고,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 예술인·특고와 사업주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당과 힘을 합쳐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정보 확대 등 소득과약 이행화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다.

노동계 숙원이었던 '아프면 쉬 수 있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도입은 국내 사정에 맞춘 '한국형'으로 추진하며, 내년 연구용역 수행과 내후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노인·장애인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95만가구, 569만명인 기초생보·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025년에 113만가구, 73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1일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내년 40만명에서 2022년부터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연간 3만5000명에는 정부가 일 2만1000원~월 180만원을 들여 일 경험 지원을 하기로 했다.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 단기직무 경험을 제공하거나,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식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2021년 5만명)을 해줄 방침이다.

기업이 채용한 청년 인턴에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6개월 지원은 올해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외에 2025년 목표고용서비스 연간 이용자 560만명(현 390만명), 고용률 70% 이상(66.8%), AI 추천 취업건수 10만명(1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46명에서 2025년 0.2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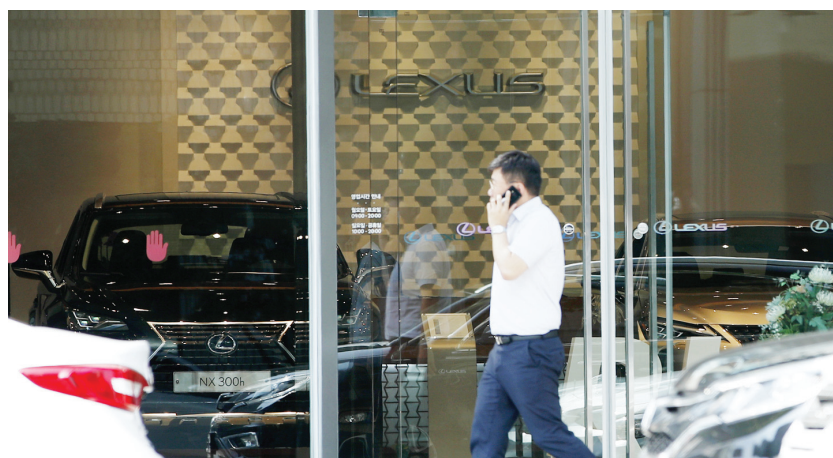
전 세계 최장 수주인 근로시간(연간 1957시간, 작년 기준)은 2022년 1800시간대에 진입시킨 이후 2025년 1850시간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렉서스, '불매 운동' 이후 첫 월 판매 1000대 회복

신차 출시에 개소세 70%인하 일몰효과로 1014대 판매



렉서스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일본차 불매 운동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월 판매 1000대를 회복했다. 신차 출시 및 프로모션 효과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개별소비세 70%인하 조치(1.5% 적용·3월~6월) 일몰 시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일부 소비자들의 여전히 반일감정에도 고품질 브랜드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일부 소비자들의 여전히 반일감정에도 고품질 브랜드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역시 1월 509대, 2

월 475대, 3월 411대, 4월 467대 등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평균 1300대 이상 판매됐으나 불매운동 여파에 반년 넘게 부진이 계속됐다.

분위기는 개소세 70%인하 조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5월부터 반전됐다. 이후 판매 반등세를 보이던 렉서스는 5월 727대에 이어 6월에는 1000대(1014대) 회복에 성공했다.

렉서스의 상반기 전체 판매량은 3579대다. 최근 두 달 동안 판매된 차량이 절반을 차지한다. 렉서스는 4월까지 판매가 워낙 부진해 1만대 클럽 달성은 어렵지만 월판매 1000대 회복에 의미를 두고 있다.

판매 회복은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가 견인했다. ES 300h는

올해 상반기 2258대가 판매돼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9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출시한 신형SUV NEW RX 시리즈도 각각 RX450h 389대, UX250h 383대 순으로 팔리며 실적회복에 힘을 보탤다.

렉서스는 지난달 2일 콤팩트 SUV인 UX 250h F SPORT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실적회복 기조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모델은 기존 UX 250h에 각종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스포츠 패키지다. 가격은 5070만원으로 실속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했다.

주춤했던 마케팅도 재개한다. 렉서스는 이달 RX·UX·NX 등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관련 온라인 시승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추첨을 통해 30명의 시승인원을 선발하고 3박4일 시승권과 캠핑 수납함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 이달 31일까지 전국 렉서스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던 아게인 썸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렉서스 차량에 살균 및 소독 서비스 및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여기에 법인 전용 리스 프로그램인 '렉서스 오토 케어 리스' 등을 선보이는 등 판매전선 회복을 위한 마케팅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물도바이이스 와인 맛보세요" 비캅스 시즌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동유럽 물도바에서 온 '물도바 아이스 와인' 2종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절이 뚜렷해 와인 생산 최적 지역인 동유럽 물도바는 세계 20대 와인 생산지이며 와인 강국이다

"국민의 91.8% 도시에 산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 결과 도시 면적, 국토의 16.7% 차지

우리나라 주민 등록상 총인구 5185만명 중 91.8%가 국토 면적 중 16.7%인 도시 면적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 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별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4만9301㎢의 농림지역(46.4%)이다. 관리지역이 2만7260㎢(25.7%)로 뒤를 이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만1885㎢(11.2%)로 제일 적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 등으로 나뉘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59만 6532명(91.8%)이었다. 지난 1970년 조사에서 50.1%를 기록한 이래 1980년 66.7%, 1990년 81.9%, 2000년 88.3% 등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차지한 것은 4만9301㎢의 농림지역(46.4%)이다. 관리지역이 2만7260㎢(25.7%)로 뒤를 이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만1885㎢(11.2%)로 제일 적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 등으로 나뉘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59만 6532명(91.8%)이었다. 지난 1970년 조사에서 50.1%를 기록한 이래 1980년 66.7%, 1990년 81.9%, 2000년 88.3% 등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였다.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 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 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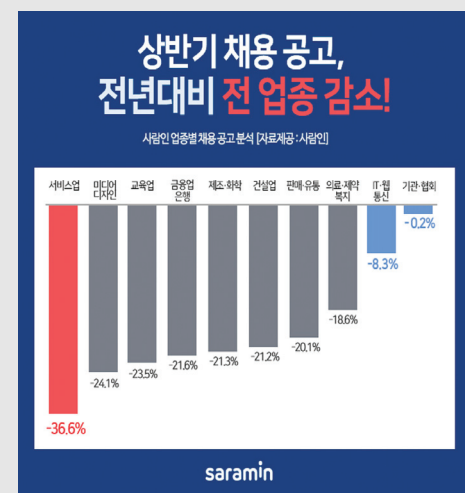
전 업종 채용 '급감'...IT-서비스업 '희비' 엇갈려

서비스업, 채용공고 36.6%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확대 관련 업종의 구인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상반기 채용공고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업종의 채용공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가장 공고 감소율이 낮은 곳은 '기관·협회'(-0.2%), 'IT·웹·통신'(-8.3%)이 뒤를 이었다. 특히 6월부터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6%, 6.5% 공고가 늘었다.

임민욱 팀장은 "IT·웹·통신"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 문화 전반에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오



히려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IT·웹·통신' 업종의 중분류를 살펴보면 언택트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쇼핑몰·오픈마켓'은 전년 대비 구인이 0.1% 줄며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IT·웹·통신' 채용공고 다음으로 감소율이 적었던 업종은 '의료·제약·복지'(-18.6%)였다. 이밖에 △판매·유통(-20.1%) △건설업(-21.2%) △제조·화학(-21.3%) △은행·금융업(-21.6%) △교육업(-23.5%) △미디어·디자인(-24.1%) 등 순이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채용공고가 36.6% 줄어 낙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면 접촉이 불가피한 '뷰티·미용'(-62.6%)이나 지역 이동에 의한 감염의 문제로 관광객 수요가 급감한 '호텔·여행·항공'(-50.3%) 업종은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여수시는 판매 부진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들에게 나섰다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여수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펼쳐 전국적인 유행세를 탄 여수 반건조 우럭을 우체국 쇼핑물

에 입점시켜 판매하고 있다. 우체국 쇼핑물에서는 어업인들기 상품 단독베너를 통해 31일까지 반건조 우럭 2마리(400g이상)를 9900원 특가에 무료배송으로

살 수 있다. 앞서 여수시, 여수우체국,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지난 4월 3만 3333장자 판매를 목표로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온라인 몰을 통해 70여가에서 3억4800만원 상당의 우럭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소비 촉진을 위해 우체국쇼핑물과 우체국 연계 제휴채널에 택배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우럭은 짬이나 맑은탕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며 "맛있는 우럭 맛도 보고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